2021년 4월 24일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대방광불화엄경』권14 강독(04:19-05:12)

문현수(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범례>
A: 한문원문
B: 석독구결문(sktot2019_01_textB)
C: B에 대한 현대어역
D: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의 현대어역

『大方廣佛華嚴經』 80권본의 권14는 정행품(淨行品) 및 현수품(賢首品)의 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강독하는 내용은 권14의 정행품(淨行品)에 해당한다. 이전 강독에서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의 방법을 질문한 지수보살(智首菩薩)에게 문수보살이 답변한 내용의 일부를 다루었는데, 오늘 강독하는 부분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

<화엄02:10-11>
B: 爾 時十 文殊師利菩薩ㄱ 智首菩薩乙 告ソ3 言ㅎ尸 善ナㄱ{哉}彳 佛子ミ
C: 그때 文殊師利菩薩이 智首菩薩에게 말하시기를, “좋습니다, 불자여.
……
<화엄02:17-18>
B: 佛子3 云何七ソㄱ乙 用心ソㄱ丨十 能支 一切 勝妙功德乙 獲尸丁ノ令ロソ禾尸入ㄱ
C: 佛子여, “어떠한 것을 마음을 썼을 때에 能히 一切 勝妙功德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한다면,
<화엄02:18-19>
B: 佛子3 <u>菩薩ㄱ</u> 在家ソㄱ丨十ㄱ 當八 願ロ尸入ㄱ <u>衆生ㄱ</u> 家性ラ 空ノㄱ入乙 知3ホ 其 逼迫乙 免支ヒ立ソメ禾ケ
C: 佛子여, 菩薩이 在家한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의 空함을 알아서 그 逼迫을 했으면.” 하는 것이며,
……
<화엄08:15>
B: 睡眠乙 始七乊 寤去ㄱ丨十ㄱ 當 願 衆生 一切 智灬 覺ノ尸ム 周七 十方乙 顧ソヒ立ノ禾ナ丨
C: 睡眠을 비로소 깬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一切의 智慧로 깨되 두루 十方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화엄04:19>

A: 發趾向道 當願衆生 趣佛所行 入無依處

B: 趾乙 發丷阝尔 道乙 向丷去ㄱ 丨十ㄱ 當 願 衆生 佛矢 所行阝十 趣丷阝八 無依處阝十 入乙ヒ立

C: 발을 내어서 길을 향한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부처님의 행한 바에 나아가서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들었으면.” (하는 것이며)

D: 발 들고 길을 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행하시던 데로 나아가 의지가 없는 곳에 들어가지이다.

佛矢[화엄: 18개]	佛ㄷ[화소: 24개] [화엄: 2개]
佛矢 無乎ᅙㄱ 矢亠{有}	佛ㄷ阝 能支 了丷乎ᅙ于ᄒ丷ナ丨
佛矢 無乎ᅙㄱ 矢⺀	佛ㄷ 出世丷阝 授記乙 說乎ᅙㄱ 丁
佛矢 有ナ八乎ᅙㄱ 矢⺀	佛ㄷ 出世丷阝 授記乙 說乎ᅙㄱ 丁ノ令乙 念丷分
佛矢 不思議リ乎ᅙㄱ 入乙	佛ㄷ 出世丷阝 修多羅乙 說乎ᅙㄱ 丁
	佛ㄷ 出世丷阝 修多羅乙 說乎ᅙㄱ 丁ノ令乙 念丷分
佛矢 所	佛ㄷ {有}ナ乎下
佛矢 所阝十丷阝八	
佛矢 所阝十刀	佛ㄷ{之} 道阝十 [화엄]
佛矢 所行阝十	佛ㄷ 經典阝十
佛矢 上味乙	佛ㄷ 國土阝十
佛矢 相好乙	佛ㄷ 名號⺀
佛矢 善根乙	佛ㄷ 名號⺀
佛矢 一味{之}七 法乙	佛ㄷ 名號⺀
	佛ㄷ 名號⺀
佛矢 說乎ᅙㄱ 所阝十 順七丷阝八	佛ㄷ 名號⺀
佛矢 憶念丷乎ᅙ尸 所 {爲}入乙丷ヒ于分	佛ㄷ 名號⺀
佛矢 授記丷乎ᅙ尸 所リ尸{爲}入乙丷ヒ于分	佛ㄷ 所阝十
佛矢 護念丷乎ᅙ尸 所リ尸{爲}入乙丷ヒ于分	佛ㄷ 授記乙
佛矢 護念丷乎ᅙ尸 所リ尸{爲}入乙丷ヒ尸入ㄱ	佛ㄷ 授記⺀
佛矢 往阝十 修乎ᅙㄱヒ七 淸淨行乙	佛ㄷ 授記⺀
	佛ㄷ 神力乙
	佛ㄷ 衆會道場阝十
	佛ㄷ 說乎ᅙㄱ 所七 修多羅乙
	佛ㄷ 出家丷乎ᅙㄱ ラ十 同丷阝八 [화엄]
	佛ㄷ 護念丷乎ᅙ尸 所リㄱ 入灬{故}リ分
	佛ㄷ{之} 修行丷乎ᅙ尸 所乙 聞口八
	佛ㄷリ[공동격조사] 菩薩尸 {有}斗乎ᅙㄱ 所七 功德乙

[知]

[中古音] 知母 支韻 平聲 知小韻 陟離切 三等 開口

高本漢	ȶie̯
王力	ȶĭe
李榮	ȶie
邵榮芬	ȶiɛ
鄭張尚芳	ʈiɛ
潘悟雲	ʈiɛ
蒲立本	ʈiə̆

[上古音] 黃侃系統：端母 齊部

王力系統：端母 支部

[止]

[中古音] 照章母 止韻 上聲 止小韻 諸市切 三等 開口

高本漢	tɕi
王力	tɕĭə
李榮	tɕiə
邵榮芬	tɕie
鄭張尚芳	tɕi
潘悟雲	tɕi
蒲立本	ci

[上古音] 黃侃系統：端母 咍部

王力系統：章母 之部

[體]

[中古音] 透母 齊韻 上聲 體小韻 他禮切 四等 開口

高本漢	tʰiei
王力	tʰiei
李榮	tʰei
邵榮芬	tʰɛi
鄭張尚芳	tʰei
潘悟雲	tʰei
蒲立本	tʰɛj

[上古音] 黃侃系統：透母 灰部

王力系統：透母 脂部

※ 진본 화엄경: 42(-)[㇄]와 35(·)[矢]의 구분이 명확함

<진본화엄20, 16:15-16:16> 善能兮 諸 佛㇄ 世界乙 分別(丷)古(능히 부처 세계를 분별하고)

(참고) 分別諸佛[42(-)]世界[41(·),22(·)]//分別諸佛[㇄]世界[乙,古]

<진본화엄20, 01:04> 壞氵ᅙ亠可丷㇆ 不矢ㅌ七 業乙 成就(丷)古(허물 직한 것이 아닌 업을 성취하고)

(참고) 不可壞[42(·),24(\),12(:),35(·),25(··)]業[41(·),22(·)]//不可壞[氵,ᅙ亠,丷㇆,矢,ㅌ七]業[乙,古]

※ 주본 화엄경: ‘矢’와 ‘㇄’의 구분이 없이 35(·)[矢]로만 표기됨.

<주본화엄06, 01:12-13> 一切 諸㇆ 佛矢刀 皆七 諸㇆ 菩薩尸 {爲}氵

(일체 모든 부처도 모두 모든 보살을 위하여) 佛[35(·),42(\)]//佛[矢,刀]

<주본화엄06, 14:19> 十方七 諸㇆ 佛矢刂 共七 其 力乙 與㢱分丷氵

(시방의 모든 부처가 함께 그 힘을 주시며 하여) 佛[35(·),24(|)]//佛[矢,刂]

<주본화엄06, 16:05> 佛矢㇆ 正法輪乙 轉㢱ᅙ尸厶(부처는 正法輪을 굴리시되)

(참고) 佛[35(·),33(·)]//佛[矢,㇆]

<주본화엄57, 07:19-20> 說氵亠 可七丷㇆ 不矢分(이름 직한 것이 아니며)

(참고) 不可說[34(|),42(|),25(·),12(:),35(·),51(·)]//不可說[氵,亠,七,丷㇆,矢,分]

- 목적격조사가 아닌 ‘乙’
※ 말음첨기: 入乙ヒ立[유일례]
※ ‘-口乙-’, ‘-ヒ乙-’의 ‘乙’
‘-口乙-’: 不矢リ口乙ᄼ, 不ソ去口乙ᅙ丨, 得阝口乙ᅙ尸入ㄱ, 慧藏⺀ソ口乙ᅙ示ㄱ⺀
‘-ヒ乙-’: 下ソ口ヒ乙ᄼ
→ ‘乙’이 ‘尸’로도 나타나며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乙→尸’: 故ノソニ口尸ᄼ, 得ヒ尸ᄼ
‘乙→ø’: 勸喩ソ口ᅙ尸丁, 知白阝口ろㄱ⺀ソㄱ乃, 有七丨ソ口ろ亽阝, 如支ソ口ヒᄼ
※ ‘乙灬’의 ‘乙’
<화소16:08-09> 血肉乙灬 塗ノㄱ 所リᄼ(血肉으로 塗한 바이며)
<화엄02:11-12> 安隱ノ尸 所阝 多ナㄱ入乙灬(安隱한 것이 많은 까닭으로)
<금광05:04-05> 大智慧七 行ㅗノ尸乙灬 得阝尒 究竟阝十 度ノ尸ム
(大智慧의 行이니 하는 것으로 능히 究竟에 건너게 하되)
<화소07:03-05> 如來 滅ソᄒㄱ乙灬七 後リ十 有リ丨
(여래가 멸하심으로부터의 뒤에[멸하신 후에] 有이다)
- 단, ‘-尸灬’, ‘-ㄱ灬’는 쓰이지 않음.

<화엄04:20>
A: 若在於道 當願衆生 能行佛道 向無餘法
B: 若七 {於}道阝十 在ソ去ㄱ丨十ㄱ 當 願 衆生 能支 佛道乙 行ソ阝尒 無餘法阝十 向ソヒ立
C: 만약 길에 있은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能히 佛道를 行하여서 남김 없는 法으로 向하였으면.” (하는 것이며)
D: 길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 도를 행하여 나머지 없는 법에 향해지이다.

<화엄04:21>
A: 涉路而去 當願衆生 履淨法界 心無障礙
B: 路乙 涉阝尒 而灬 去去ㄱ丨十ㄱ 當 願 衆生 淨法界乙 履ノ尸ム 心阝十 障礙尸 無ヒ立
C: 길을 걸어서 간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깨끗한 法界를 밟되 마음에 막힘 없었으면.” (하는 것이며)
D: 길을 걸어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한 법계(法界)를 밟아서 마음에 장애가 없어지이다.

<화엄04:22>
A: 見昇高路 當願衆生 永出三界 心無怯弱
B: 高ㄱ ラ十 昇ノ亽七 路乙 見阝ㄱ丨十ㄱ 當 願 衆生 永去 三界乙 出ソ阝尒 心阝十 怯弱 無ヒ立
C: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길이 三界를 벗어나서 마음에 怯弱함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며)
D: 올라가는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히 삼계에서 뛰어나 마음에 겁약(怯弱)함이 없어지이다.

<화엄04:23>

A: 見趣下路 當願衆生 其心謙下 長佛善根

B: 下ㄱ ラ十 趣ノ今七 路乙 見3ㄱㅣ十ㄱ 當 願 衆生 其 心ㅎ 謙下ソ3ハ 佛矢 善根乙 長ソヒ立

C: 낮은 곳에 내려가는 길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그 마음이 겸허하여서 부처님의 善根을 길렀으면." (하는 것이며)

D: 내려가는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이 겸손하고 하심하여 부처님의 선근을 기루어지이다.

- '-ラ十'의 형태소 분석

① 속격조사 '-ラ' + '-十' = 여격으로, '-尸十'와 이형태 관계

<구인03:17> 爾七ソㄱ 時十 佛ㄱ 大衆ラ十 告ソニ尸(그때에 佛은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인14:20> 佛ㄱ 大王ラ十 告ニ尸(부처는 대왕에게 이르시기를,)

<화소15:19-20> 其 所3十 至3 菩薩尸十 告ソ3 言白ナ尸丁(그 곳에 이르러 보살께 고하여 사뢰기를)

<주본화엄22, 11:15-16> 數 無ㄱ 種種七 色七 天栴檀末香乙 持(ソ)3ホ 如來尸十 奉散(ソ)白ケ
(수 없는 갖가지 색의 天栴檀末香을 가지고서 여래께 奉散하며)
(참고) 奉散如來[44(·),53(·),34(-),51(·)] // 奉散如來[尸,十,白,ケ]

<주본화엄57, 04:14-15> 如來尸十 勸請ソケ(여래께 勸請하며)
(참고) 勸請如來[44(·),53(·),52(·),경계선] // 勸請如來[尸,十,ソケ]

※ 속격조사 '-尸'의 용례

<주본화엄34, 07:09> 善逝尸 一切 行ミノ今乙 說ロハㅎ立(善逝의 一切 行이니 하는 것을 말씀하소서)
(참고)善逝[44(·)]一切行[11(·),41(:),23(/),53(|·)]//善逝[尸]一切行[ミ,ノ今乙,ロハ,ㅎ立]

<주본화엄06, 18:15> 能支 正徧知尸 一切 諸ㄱ 法海十 游ヒㅣ(능히 正徧知의 一切 모든 法海에서 놀았다)
(참고)正徧知[44(·)]一切諸[33(·)]法海[53(·),54(.)]//正徧知[尸]一切諸[ㄱ]法海[十,ヒㅣ]

<유가25:08-10> 二 他師教リㄱ 謂ㄱ 所ㄱ 大師尸 鄔波柁耶亠 阿遮利耶亠ノ尸ラ {於}時時間3十 教授 教誡 ノ尸入乙 依3 攝受 依止ソ尸矢ㅣ(둘째는 다른 스승의 가르침인, 이른바 대사(인) 오파타야니 아사리야니 하는 이가 때때로 교수 교계하는 것을 의지하여, (그로써) 섭수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주본화엄36, 13:24> 有爲尸 體性リ 虛(ソ)ㅎ 僞(ソ)ㅎソ3(有爲의 體性이 虛하고 僞하고 하여)
(참고) 有爲[44(·)]體性[24(|)] // 有爲[尸]體性[リ]

<주본화엄34, 08:15> 空中3七 鳥尸 迹ㄱ 難ミ 說ケ(공중에서의 새의 발자국은 어렵게야 說하며)
(참고) 鳥[44(·)]迹[33(·)] // 鳥[尸]迹[ㄱ]

※ 속격조사 '-尸'의 목록

점토: 正徧知尸, 如來尸, 菩薩尸, 善逝尸, 一切尸, 鳥尸, 世尸, 有爲尸, 一切尸十, 如來尸十, 菩薩尸十

자토: 菩薩摩訶薩尸, 如來尸, 菩薩尸, 梵志尸, 大師尸, 上尸, 類尸, 外尸, 三世尸, {吾}又尸, 一切尸十, 菩薩尸十
(참고) 如來七, 菩薩七, 世七, 有爲七, 上七, 類七, 外七, {我}又ラ
佛七, 佛矢七/佛[35(·),25(·)], 佛矢ラ十 白3/白佛[矢,ラ十,3]

※ 말음첨기 '-尸'의 목록

점토: 二尸, 十尸, 萬尸, 昔尸, 復尸

자토: 今日尸, 二尸, 十尸, 萬尸, 昔尸, 復甲尸

② 특이처격조사 '-ラ' + '-十' = 처격으로, '-3十'와 이형태 관계

<화엄18:11> 其 事ラ十 同ソナ3(그 일과 같아)

<화엄06:09> {於}不善ソヒ七 事3十 樂著乙 生リ尸 不ソヒ立(不善의 일에 즐겨함을 내지 마서)

<화소10:10-11>今ソㄱ 我ㄱ 亦ソㄱ 當ハ {於}往昔3十 同ソ3ハ(지금 나는 또한 반드시 옛날과 같아서)

※ 동명사어미 '-ㄱ'/'-尸'과 대명사/의존명사의 'リ'에는 '3 十' 대신에 'ラ十'만이 온다.

<유가06:12> 是 如支ソㄱ乙 名下 {爲}涅槃乙 首 {爲}氵<u>ㄱラ十</u> 有ヒㄱ 所ヒ 廣義亠ノ尸亠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열반을 으뜸으로 삼는 데에 있는 바 자세한 의미[廣義]라 하는 것이니,)

<금광03:13-14> 一切 難行ノ<u>尸ラ十</u> 猒心乙 生尸 不冬ソ今(一切 難行하는 것에 대해서 猒心을 내지 않으며,)

<화엄17:20-21> 菩薩ㄱ {此}<u>リラ十</u> 住ソ3ソㄱ(菩薩은 여기에 머무니)

<화엄02:24> 若ヒ 宮: 室:ノ<u>今ラ十</u> 在ソ去ㄱㅣ十ㄱ(만약 宮이니 室이니 하는 곳에 있은 경우에는)

<제망매가> 此<u>矣</u> 彼<u>矣</u> 浮良 落尸 葉 如(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 같이)

※ '3 ヒ': 처격조사 '-3'와 속격조사 '-ヒ'의 결합형

<화엄09:03> 大海<u>3 ヒ</u> 一ㄱ 滴ㅎヒ 水(大海에서의 한 방울 물)

<화엄09:09> 大地<u>3 ヒ</u> 一ㄱ 微塵(大地에서의 한 微塵과)

<유가06:16-17> 定心 中<u>3 ヒ</u> 慧リ(정심 중에서의 지혜가)

-> 주본 화엄경에서는 25(·.)[3 ヒ]으로 존재함.

※ 'ラヒ': 특이처격조사 '-ラ'와 속격조사 '-ヒ'의 결합형

<화소25:10-11> 一ㄱ 文: 一ㄱ 句:ノ今<u>ラヒ</u> 義理ㄱ(한 문장이니 한 구절이니 하는 것에서의 의리는)

<자비17:01-03> 阿鼻地獄 {等}ㅣソㄱ<u>ラヒ</u> 苦乙(阿鼻地獄과 같은 데에서의 苦를)

-> 주본 화엄경에서는 32(/)[ラヒ]으로 존재함.

※ '十ヒ': 처격조사 '-十'와 속격조사 '-ヒ'의 결합형

<유가11:08-09> 方便灬 止觀品乙 修ソ今ヒ 時<u>十ヒ</u> {於}諸 法 中3十 有ヒㄱ 所ヒ 忘念リ今
(방편으로 지관품을 닦을 때에서의 여러 법 가운데 있는 바 망념이며,)

<유가66, 22:03> 若 {於}諸 諦<u>十ヒ</u> 不共無明人 {於}諦<u>十ヒ</u> 疑 等(ソ)ヒ人
(혹 모든 諦에서의 不共無明과 諦에서의 疑 같은 것과)
(참고) 於諸諦[44(·),42(·)] // 於諸諦[十,ヒ]　　於諦[44(·),42(·)]//於諦[十,ヒ]

※ 특이처격조사 '-ラ'

<화소07:20-08:01> 何ㅎ {等}ㅣソ;ㄱ 如來リ 最ハ <u>先ラ</u> 出ソ;今(어느 것과 같으신 여래가 가장 먼저 나시며)

<구인02:20-23> <u>前ラ</u> 已氵 {我}チ 等ソㄱ 大衆ラ {爲}氵ㅎ 二十九年3十ソニ下(전에 이미 우리 같은 大衆을 위하여)

<자비20:05-06> 晝夜 三時3十 大ㄱ 銅鑊 有ヒㄱ: 中3十 烊ㅎ 銅リ 滿ソㄱ: 自然ㅎ <u>前ラ</u> 在ソ去ㄱ乙
(주야 세 때에 큰 구리솥이 있으니 안에서 녹아 구리가 차 있는데 저절로 앞에 있거늘)

- '前ラ', '先ラ'는 명사 '앒'에 특이처격조사 '-읜'가 결합한 어형으로 추정됨.

※ 특이처격조사 구성 '-ム'

<화소35, 12:11-12> {我}又 {等}ㅣソㄱㄱ 風乙 欽ヒロヒノ尸入灬 故去 來ソ3ホ {此}<u>リム</u> 至去ロヒノㅣ
(우리 등은 風聞을 흠모하는 까닭으로 와서 <u>이곳에</u> 이르렀습니다.)

<금광3, 15:05-06> 是 會ヒ 大衆ㄱ 皆 悉 <u>彼ム</u> 往3 爲ノ 聽衆リ尸入乙 作ソロヒノ矛今
(이 法會의 大衆은 모두 다 <u>거기에</u> 가 위하여 聽衆이 될 것이며,)

- 'ム'는 의존명사 'ᄃᆞ'에 특이처격조사 '-읜'가 결합한 어형으로 추정됨.
혹은 '矣'가 '읜'를 표기하던 흔적이 남은 것일 수도 있음.

※ 처격조사 '-𠂉'

<구인03:18-19> 吾ㄱ 今ソㄱ 先𠂉 諸ㄱ 菩薩{爲}氵ホ 佛果乙 護ノ今七 因緣: 十地七 行乙 護ノ今七 因緣:ノ乙 說白ろホヒㅣ(나는 지금 먼저 모든 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유가04:15> 先下 說ノㄱ 所七 相乙 如ハ 而灬 正法乙 聽聞ノ尸ム(먼저 말한 바 상과 같이 정법을 자세히 듣되,)

- '先ラ' 이외에 '先𠂉', '先下'도 쓰이는데, 이들은 크게 의미차이 없이 쓰임. 이들은 명사 '앒'에 처격조사 '-𠂉'가 결합한 어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악하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先𠂉'와 '先下'를 각각 '몬져', '몬지하'로 다르게 읽을 필요가 없이 일관되게 '알파'로 읽을 수 있음.

※ 처격조사 구성 '-乃': 一一[33(·),53(-),43(\),55(·)] // 一一[ㄱ,乃,ケ,ㅣ]

<주본화엄06, 20:04> 能支 {於} 諸ㄱ 佛身十 一一ㄱ乃ケㅣ 而灬 觀察ノ尸ム(능히 모든 佛身에 대해 하나하나에서마다 觀察하되),

<주본화엄06, 16:22> 一一ㄱ乃ケㅣ 皆七 能支 一切 佛矢 神力乙 見白ヒㅣ(하나하나에서마다 모두 능히 一切 부처의 神力을 보았다.)

<광수공양가> 手良每如 法叱 供乙留(손에마다 法의 供으로)

<화엄14:19> 念念𠂉十ケㅣ 佛道 成ㅏ乊ㄱ入乙 示現ソ3(念念에마다 佛道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고)

- '乃'는 '一'의 말음인 'ㄱ'이 연음된 'ㄴ'과 처격조사 '-아'의 결합형을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부사화소 '-人'는 '-尸'의 특이처격 용법?

<주본화엄22, 14:20-21> 一切尸 悉𠂉 得乊尸 所 無乊ㄱ入乙 了達(ソ)3(一切에 다 얻을 바 없는 것을 了達하고)

(참고)了達一切[44(·)]悉[34(|)]無所得[14(·.),12(·.),41(··),22(·)]//了達一切[尸]悉[𠂉]無所得[乊尸,乊ㄱ,入乙,3]

<화엄15:07> {是}リ 如支ソㄱ 一切尸十 皆七 自在ち ソㅏ乊ㄱ入ㄱ 佛 華嚴三昧七 力乙 {以}氵ナホㅣ

(이와 같은 一切에 다 自在하게 하면 부처님의 華嚴三昧의 힘을 쓴다.)

<원가> 物叱 好支 栢史 秋察尸 不冬 爾屋支 墮米(物色이 좋아 잣이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않으매)

<혜성가> 舊理 東尸 汀叱 乾達婆矣 遊烏隱 城叱兮良 望良古 倭理叱 軍置 來叱多

(옛날 동쪽에서 물가의 건달바가 놀던 성을 노리고 왜의 군도 왔다)

<화소11:16-18> 佛子𠂉 {此}リ 菩薩ㄱ 上尸 說乊ㄱ 所𠂉 如支ソ𠂉

(불자야, 이 菩薩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아)

(참고) <구인14:11-12> 大王下 若七 菩薩 上十 見ろ尸 所𠂉 {如}ㅣソㄱ 衆生ㄱ 幻化リ罒

(大王이시여, 만약 菩薩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중생은 幻化라서)

<금광07:18-19> 昔尸 得尸 未リソラヒㅣノㄱ 所七 勝利乙 得𠂉ㄱ入灬

(예전에 얻지 못한 바의 수승한 이익(勝利)을 얻은 까닭으로)

<화소11:12-13> {於}衰歇ソ去ヒ七 時リ十尸入ㄱ 復甲尸 更𠂉 衆生乙 饒益尸 不(ノ)能リ矢ノ手ナㄱリ罒

(쇠락한 때이면 또 다시는 衆生을 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서)

(참고) <자비19:01-03> 畢竟 復甲 {於}三途𠂉十 入尸 不ソ乀(畢竟 다시 三途에 들어가지 않으며)

<능엄경언해02:46a> 此精妙明이 誠汝見性이라 하시니// 이 精妙明이 眞實ㅅ 네 보미 性이라 ᄒᆞ시니

<두시언해15:15a> 林香出實垂將盡 // 수프렛 곳다온 남ᄀᆞᆫ 여르믈 내야 쟝ᄎᆞᆺ 업수메 다ᄃᆞᄅᆞᆺ고

<화엄04:24>

A: 見斜曲路 當願衆生 捨不正道 永除惡見

B: 斜曲ソㅌ七 路乙 見氵丁丨十丁 當 願 衆生 不正道乙 捨ソ氵八 永厶 惡見乙 除ㅌ立

C: 굽은 길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不正한 길을 버리고서 길이 惡見을 제거하였으면.” (하는 것이며)

D: 비뚤어진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바르지 못한 길을 버리고 나쁜 소견을 영원히 덜어지이다.

<화엄05:01>

A: 若見直路 當願衆生 其心正直 無諂無誑

B: 若七 直路乙 見氵丁丨十丁 當 願 衆生 其 心亠 正直ソ氵八 諂 無分 誑 無ㅌ立

C: 만약 곧은 길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그 마음이 정직하여서 아첨 없으며 기만 없으셔.” (하는 것이며)

D: 곧은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이 곧고 발라서 아첨하고 속임이 없어지이다.

<화엄05:02>

A: 見路多塵 當願衆生 遠離塵坌 獲淸淨法

B: 路リ 塵 多丁乙 見氵丁丨十丁 當 願 衆生 塵坌乙 遠離ソ氵八 淸淨法乙 獲ㅌ立

C: 길이 먼지가 많은 것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먼지를 멀리하여서 淸淨한 法을 얻었으면.” (하는 것이며)

D: 티끌이 많은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티끌을 멀리 여의고 청정한 법을 얻어지이다.

<화엄05:03>

A: 見路無塵 當願衆生 常行大悲 其心潤澤

B: 路リ 無塵ソ丁乙 見氵丁丨十丁 當 願 衆生 常リ 大悲乙 行ソ氵尒 其 心亠 潤澤ソㅌ立

C: 길이 먼지가 없는 것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항상 大悲를 行하여서 그 마음이 윤택하였으면.” (하는 것이며)

D: 먼지가 없는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크게 불쌍히 여김을 행하여 마음이 윤택하여지이다.

<화엄05:04>

A: 若見險道 當願衆生 住正法界 離諸罪難

B: 若七 險道乙 見氵丁丨十丁 當 願 衆生 正法界氵十 住ソ氵八 諸丁 罪難乙 離支ㅌ立

C: 만약 험난한 길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바른 法界에 머물러 모든 죄와 어려움을 여의었으면.” (하는 것이며)

D: 험한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바른 법계(法界)에 머물러서 죄와 장난[難]이 없어지이다.

<화엄05:05>

A: 若見衆會 當願衆生 說甚深法 一切和合

B: 若七 衆會乙 見3ㄱㅣ十ㄱ 當 願 衆生 甚深法乙 說3尒 一切乙 和合亽刂匕立

C: 만약 衆會를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甚深한 法을 說하여서 一切를 和合하게 하였으면." (하는 것이며)

D: 대중이 모인 데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깊고 깊은 법을 말하여서 일체가 화합하여지이다.

<화엄05:06>

A: 若見大柱 當願衆生 離我諍心 無有忿恨

B: 若七 大柱乙 見3ㄱㅣ十ㄱ 當 願 衆生 我諍七 心乙 離支ロハ 忿恨ノ尸 無匕立{有}

C: 만약 큰 기둥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나'라는 다툼의 마음을 버리고서 성내거나 원망함 없었으면." (하는 것이며)

D: 큰 기둥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나[我]라는 다투는 마음을 여의고 분한 원한이 없어지이다.

<화엄05:07>

A: 若見叢林 當願衆生 諸天及人 所應敬禮

B: 若七 叢林乙 見3ㄱㅣ十ㄱ 當 願 衆生 諸ㄱ 天冫 及七 人冫ノ今ラ 敬禮ノ亠應七ソㄱ 所刂匕立

C: 만약 숲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모든 天이니 및 사람이니 하는 이의 敬禮함 직한 바이었으면." (하는 것이며)

D: 우거진 숲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을 하늘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예배하여지이다.

<화엄05:08>

A: 若見高山 當願衆生 善根超出 無能至頂

B: 若七 高山乙 見 當 願 衆生 善根 超出ソ3ハ 能矢 頂3十 至3今 無匕立

C: 만약 高山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善根을 超出하여서 能히 정수리에 이르는 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며)

D: 높은 산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근이 뛰어나서 그 위에 이를 이가 없어지이다.

<화엄05:09>

A: 見棘刺樹 當願衆生 疾得翦除 三毒之刺

B: 棘刺樹乙 見 當 願 衆生 疾刂 得3尒 三毒七{之} 刺乙 翦除ソ匕立

C: 가시나무를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빨리 능히 三毒의 가시를 잘라 없앴으면." (하는 것이며)

D: 가시 있는 나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세 가지 독한 가시를 빨리 끊어 버려지이다.

<화엄05:10>

A: 見樹葉茂 當願衆生 以定解脫 而爲蔭映

B: 樹刂 葉茂丷ㄱ乙 見 當 願 衆生 定⺀ 解脫⺀ノ令乙 以阝八 而灬 蔭映ノ尸 {爲}氵ㅌ立

C: 나뭇잎이 무성한 것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선정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으로써 그늘을 삼았으면.” (하는 것이며)

D: 나무 잎이 무성함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정과 해탈로써 그늘지고 가리워지이다.

<화엄05:11>

A: 若見華開 當願衆生 神通等法 如華開敷

B: 若 華開丷ㄱ乙 見 當 願 衆生 神通 {等}丨丷ㄱ 法刂 華 如支丷阝 開敷丷ㅌ立

C: 만약 꽃이 핀 것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神通스런 法이 꽃처럼 피었으면.” (하는 것이며)

D: 꽃이 피는 것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신통과 여러 법이 꽃 피듯 하여지이다.

<화엄05:12>

A: 若見樹華 當願衆生 衆相如華 具三十二

B: 若 樹華乙 見 當 願 衆生 衆ㄱ 相刂 華 如支丷阝 三十二乙 具ㄱㅌ立

C: 만약 나무와 꽃을 본 경우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많은 相이 꽃 같아 삼십이상을 갖추었으면.” (하는 것이며)

D: 꽃 핀 나무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여러 상호가 꽃과 같아서 三十二상이 구족하여지이다.